

광주 남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환자에게 치료비 제공, 경제·심리적 안정 도모

해당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및 간병비 등 지원

광주 남구는 7일 “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으로 분류된 1,038개 질환에 대해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신청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등록 후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희귀 질환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비와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반영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강생활지원과(☎ 607-611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희귀 질환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 코로나에도 치매 돌봄 공백 없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가가호호 돌봄서비스 운영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매환자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곡성군은 치매환자 센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치매인들에 대한 돌봄공백이 우려됐고, 이에 곡성군은 지난 7월부터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 어르신들의 말벗되기, 건강상태 확인 등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인지활동형 워크북, 인지교구, 공예치료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 서비스가 핵심 내용이다.

대상자는 개인당 주 1회 총 8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치



매환자의 고립을 예방하고, 치매 악화 방지와 인지 기능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김광휘기자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대상 정보화 지원 사업 진행

광주동부교육청, 인터넷 통신비·PC 지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PC(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화 지원 사업 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 자격이 확인되면 교육청에서 대상자 확정 후 인터넷 통신비와 PC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청이 1회선 당 매월 1만7,600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통신사에 대납한다. PC는 국민기초생계·의료생활수급권자 중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내 지원 이력이 없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PC에는 학생 수업 과제물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한컴오피스, MS Office 365)도 설치된다. 지원 받은 PC는 반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한다.

한편 지난 7월 182대의 PC를 보급 완료했고, 1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PC에 대해 1대당 10만 원 범위 내의 수리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인호기자

장흥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 복지사각 가정 에어컨 설치



장흥군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놓인 6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 6가정에 쾌적한 환경 선물 위해 벽걸이 에어컨 지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갖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드는데 노력”

찾은 태풍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쾌적한 환경을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지원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읍장 임용현, 변영희장 천중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중한 관심과 정성이 모여 이번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산읍에 소재한 여러 사회단체들과 관산읍이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